

# 치목마을 귀농·귀촌 '연화봉' 행사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 무주군 적상면 꽃피는 산골농원서 '꽃피는 마켓' 진행

무주군 적상면 치목마을에 터전을 일군 귀농·귀촌인들이 봄철을 맞아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 주목을 받았다.

지난 23일 오전 치목마을 초입인 무주군 적상면 '꽃피는 산골농원'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치목마을 귀농·귀촌 '연화봉' 팀원들이 아끼자기하게 만든 행사였다. '연화봉'은 적상산이 연꽃모양처럼 예뻐서 착안을 한 이름이다.

연화봉(대표 윤석화)은 4년 전 이곳에 귀농·귀촌한 지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이들 회원들은 6명에 불과하지만 회원 수가 많은 여성 단체가 부럽지 않다. 그만큼 서로의 의견이 되면서 우정으로 만난 동지애가 어느 단체보다 깊다는 의미에서다. 이들은 이날 산골농원에서 '꽃피는

마켓' 행사를 마련해 지역주민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불거리와 떡거리, 줄길거리 등으로 코로나19로 단절돼 있던 마을주민들에게 아주 의미있고 후에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 것.

주요 행사로는 오프닝 공연과, 리마인드웨딩, 목공체험, 원예체험, 지수체험을 비롯해 프리마켓 등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잔치국수와 봄나물전 등의 계절 먹거리도 제공했다.

연화봉 단체 실무 책임자인 김화자씨는 "리마인드웨딩을 비롯해 사진, 낭만열차 운영기수인 '잔'(본명 윤휘찬)의 버스킹 공연의 경우 모두 재능기부로 이뤄지면서 행사 추진에 많은 도움이 돼 감사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개했다.

연화봉은 지난 3월 무주군이 응모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제안공모에서 담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도 주민제안공모 첫 사업의 일환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화 지역재생팀의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일부로 s/w분야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푸드플랜팀의 마을경영체 경영력강화사업으로 간판, 선반 및 테이블 등 물품을 지원하면서 이들 행사에 힘을 보탰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화 이종현 과장은 "행사를 추진한 연화봉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 행사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등 전체 치목마을 거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화합창구와 타 귀농귀촌 마을의 모범사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발굴 사업 지속 실시... 서비스 지원

장수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사업을 시행해 관내 69명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완료하고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다.

장수군 주민복지과를 중심으로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보기구를 하나하나 방문하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힘썼다.

군은 앞으로도 군·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함께 진행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급여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그 결과 총 1억3,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예산 집행실적분야에서 3분기는 목표액 대비 113.4%, 4분기는 140.6%를 집행해 도내 1위로 평가받았으며 신속 집행률은 81.1%로 정부 목표율보다 4.5%p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철근 수급 대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관리 △사업담당자별 1:1 집행점검 △통계특별 집행 가이드라인 안내 등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쓴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의 교부 받는 등, 지난 2년간 4회 연속 '우수' 이상 평가로 총 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

### 국비 50억원 전액 지원

진안군은 지난 22일 동향면 대량지구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국비 50억원 전액 국비로 2022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로부터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동향면 대량지구 내 66ha로 배수문 7개소, 배수로 5.6km, 승수로 2.8km 등을 정비해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군은 22년 기본조사를 거쳐 23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특히 도내에서 신규지구로 선정된 12개 지구 중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진안군이 유일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농어촌 공사와 함께 상습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 대량지구 배수개선 사업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게 된 것이다.

또한 진안군은 앞서 지난 2019년 마령지구에 국비 39억원을 확보해 2019년부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장지구에도 국비 54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로부터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현재 추진 중인 지구를 비롯해 농민들의 영농을 방해하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비가 100% 지원되는 배수개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배수개선 사업 지구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2022 구미맘아랑베이비페어'에 참가해 진안홍삼을 대표하는 어린이 홍삼 제품을 홍보했다.

##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구미맘아랑베이비페어 참가

### 어린이 홍삼제품 홍보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 이하 사업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2022 구미맘아랑베이비페어'에 참가해 진안홍삼을 대표하는 어린이 홍삼 제품을 홍보했다.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구미맘아랑 행사에는 유아 및 아동 관련한 특산물 및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110여개 사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전시판매한 제품으로는 진안군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제품인 '뽕망젤리'와 '어린이홍삼 젤리홍', '아이나라홍삼'

등의 어린이 홍삼제품으로, 방문객들에게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워드 코로나를 대비해 진안군의 홍삼제품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유아 및 아동에 맞는 홍삼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참여했고, 많은 관람객들이 진안홍삼 홍보부스를 찾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김정배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진안 관내 홍삼 업계 및 인삼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안홍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삼 업계 소득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진안군의 어린이 홍삼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미취업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군이 무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전주전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한다.

군은 2022년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미취업자 대상)을 공고하고 예비 창업자를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창업분야로서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10명 모집)에게 전주전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창업교육(40시간)을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미래인 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가 선거구)은 22일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의 미래를 선도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대도시와 지방, 지방에서도 소재지권과 먼 단위 지역의 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을 지적하며 "면 단위 지역에서는 자녀교육이 힘들어 이사를 결심하는 부모들을 심심찮게 만나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학원 현황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영어·수학학원을 포함해 태권도·미술 등 예체능 학원이나 청소년수련관, 교육 시설 등이 진안읍에

집중되어 있어 먼 지역의 학생들은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파주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규 의원은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습권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우리 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싹틔울 수 있도록 따뜻한 봄바람과 단비 같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